

■ 일반논문 ■

지식 유통의 관점에서 본 근대 한국의 | **김경남**
탐험문학 형성과 의미

아마추어 지역 청년 미디어의 사회적 의미 | **신지은**
— 〈반반미디어〉를 중심으로

과도기(2006~2008) 네팔의 쿠마리 관습 | **박정석**
— 종교적 의례에서 문화적 전통으로

관광지화에 따른 디아스포라 공간의 장소성 재편 | **안종수**
— 오사카 코리아타운의 장소, 미디어, 행위 경관 분석

지식 유통의 관점에서 본 근대 한국의 탐험문학 형성과 의미*

김경남**

| 국문초록 |

이 논문은 탐험가 전기, 번역 소설, 탐험기 등을 대상으로 근대 한국의 탐험문학 분포를 조사하고, 지식 유통의 관점에서 전기와 소설, 탐험기 등의 탐험문학이 형성되는 배경과 의미를 규명하며, 그 과정에 나타난 한계를 살펴보는 데 목표를 두고 출발했다. 탐험은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곳을 찾아가서 살펴보고 조사하는 일을 말한다. 근대 한국의 탐험문학은 탐험가의 일생을 서술한 전기문, 모험이나 탐험을 소재로 한 번역 소설, 실제 탐험 관련 기록을 정리한 탐험기로 유형화할 수 있다.

근대 한국의 신문, 잡지, 단행본 등의 매체를 조사할 때, 이 시기 탐험문학으로 볼 수 있는 작품은 대략 15편으로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전기문은 문명 진보론에 입각하여 콜럼버스, 마젤란 등을 소개한 것이 대부분이다. 번역소설은 『로빈슨 크루소』, 『걸리버여행기』 등과 같이 서양 작품을 번역한 것이 대부분인데, 그 과정에서 일본어 번역본을 중역(重譯)한 것이 많다.

탐험 전기와 탐험소설은 문명 진보의 계몽 담론과 애국사상 고취 차원에서 문학의 지평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작품이 많지 않고, 실제 탐험 기록을 정리한 탐험기가 극히 드문 점은 국권침탈의 시대상황에서 근대 한국문학 발달이 갖는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주요어: 탐험문학, 전기문, 번역소설, 탐험기, 지식 유통, 문명진보론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1079180)

**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surhera@hanmail.net)

| 차례 |

1. 서론
2. 근대 탐험문학 유형과 분포
3. 지식 유통의 관점에서 본 근대 탐험문학 형성과 의미
4. 결론

1. 서론

여행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확장하는 좋은 수단이다. 전통적으로 여행의 체험은 ‘기(記)’라는 형식으로 기록된 경우가 많은데, ‘기’는 송대 유협(遊俠)의 『문심조룡(文心雕龍)』에서 문체의 하나로 ‘서기체(書記體)’를 두었듯이 매우 오래된 양식 가운데 하나이다. 유협은 ‘서(書)’와 ‘기(記)’는 모두 자신의 마음을 담은 글로 체험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기(記)’가 사물이나 사건 등의 직접 체험과 관련된 글이다.

여행기는 전통적인 유기(遊記)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보통 ‘유기’는 명산대천과 명승고적 등의 유람과 감상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근대의 여행기는 환유지구(環游地球)의 체험과 세계 지식의 유입으로 큰 전환을 맞이한다. 유길준의 『서유견문』이나 『대조선독립협회회보』 제17호의 ‘환유지구잡기(環游地球雜記)’ 등과 같이, 기존의 유람기나 연행사·통신사 기록 등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경험이 증장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근대문학의 한 양식으로 ‘탐험기’ 또는 ‘탐험문학’의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탐험기’나 ‘탐험문학’은 본질적으로 문학 연구에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다. 일상어의 차원에서 국어사전류에도 이 용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탐험을 내용으로 하는 소설을 지칭할 때 흔히 ‘탐험소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또한 미지의 대상을 탐험하여 기록으로 남

길 때 흔히 ‘탐험기(探險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학술 탐험기’, ‘유적 탐험기’ 등을 비롯하여 세계 각 지역을 탐험한 기록물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근대의 탐험문학은 「콜럼버스전」, 「마젤란전」 등과 같은 전기문, 「해저 여행」, 「저인국표류기」 등과 같은 번역·번안소설, 「남북극 탐험」 등과 같은 실기(實記)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근대 역사·전기물과 관련된 권영기(2003), 이승윤(2006) 등의 박사학위 논문이나 송백현(1983), 김치홍(2003) 등의 단행본, 인물 전기의 근대성을 논의한 황병주(2005), 근대 초기 서양 위인 전기물 번역·출판과 관련된 강현조(2010) 등에서도 근대 전기물로서의 「콜럼버스전」이나 「마젤란전」 등과 관련된 논의는 찾기 어렵다. 이에 비해 번역소설은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안용희(2008)의 『소년』 번역 텍스트와 역사적 상상력에 대한 연구, 임상석(2018)의 『실지탐험포락선』에 대한 연구, 『로빈슨표류기』와 관련된 오현숙(2012), 신미삼(2019, 2020), 정혜영(2020), 근대 번역소설의 번역어와 관련된 황미정(2014) 등의 유의미한 성과가 축적되었다. 이와 함께 안용희(2008)의 『소년』 소재 번역 텍스트 관련 연구, 김주리(2011)의 과학소설 『비행선』에 관한 연구 등도 근대의 번역 탐험문학에 대한 가치 있는 연구이다. 그러나 『소년』 소재 「북극 탐험 사적」, 「서장(西藏) 개관」 등의 탐험 실기(實記)에 대한 관심은 아직까지 찾아보기 힘들며, 그 맥락에서 일제강점기의 탐험기나 탐험문학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논문은 탐험가 전기, 번역 소설, 탐험기 등을 대상으로 근대 한국의 탐험문학 분포를 조사하고, 지식 유통의 관점에서 전기와 소설, 탐험기 등의 탐험문학이 형성되는 배경과 의미를 규명하며, 그 과정에 나타난 한계를 살펴보는 데 목표를 둔다.

2. 근대 한국 탐험문학 유형과 분포

1) 탐험문학의 개념과 근대 탐험문학의 유형

‘탐험(探險)’이란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곳을 찾아가서 살펴보고 조사하는 일을 말한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호기심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감정이므로 이로부터 비롯되는 탐험 정신은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 되었을 것이다. 이는 『동아일보』 1931년 7월 4일자 「북극의 비고를 개척함」이라는 기사에서, 북극 탐험의 역사를 서술한 기자가 극지 탐험의 기원이 기원 전 325년 전이라고 밝힌 데서도 확인된다. 이 기사에서는 탐험의 동기가 ‘동경’과 ‘엽기성’이라고 주장한다.¹⁾

탐험기는 탐험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한 글이다. 인류의 탐험 역사가 모두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탐험기의 역사나 탐험문학의 역사에 관한 학문적 연구 결과물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서양의 경우 15세기 지리상의 발견 과정을 기록한 기록물이나 바이킹의 모험담이 남아 있고, 동양의 고전에서도 『산해경(山海經)』과 같은 기문기담(奇聞奇談)을 기록한 서적을 비롯하여 다수의 여행기에 탐험 과정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탐험문학의 역사나 범주 설정이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탐험문학 또는 탐험소설이라는 유형 설정은 다수의 ‘탐험기’라는 명칭의 기록물, 동경과 호기심·모험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서양의 경우 콜럼버스나 마젤란 등의 지리상의 발견, 17~19세기 계몽사상과 과학주의의 발달, 동양의 근대화 과정에서 서세동점과 함께 만연된 ‘문명: 야만’ 담론이나 지식 개명을 주창한 계몽론 등은 근대의 탐험 예찬론이나 탐험기의 발달, 탐험소설의 유통을 가져왔다. 즉, 근대의 탐험기와 탐험문학은 근대 지식의 유통과 수용 양상을 보여주는 적

1) 『동아일보』 1931.4.4. 「北極의 祕庫를 開拓함(1)」.

절한 자료인 셈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영호(2006)에서는 1914년 남극 탐험을 소재로 한 이상춘의 『서해풍파』를 최초의 ‘탐험소설’로 규정하였다. 그는 ‘해양’에 중점을 두어 ‘실물 바다를 논하되 인간의 삶을 배제하지 않는 열린 공간으로서 재현된 바다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해양문학론’을 제창하였다.²⁾ 또한 이승은(2019)에서는 『허생전』과 『서해풍파』의 바다가 갖는 의미를 고찰하면서, 『서해풍파』는 더 이상 이동의 통로가 아니라 그 자체로 ‘탐험’과 ‘탐색’의 대상이 되었다고 서술한다.³⁾ 이처럼 ‘탐험’을 요소로 하는 개별 작품에 대한 연구 성과는 좀 더 찾을 수 있다. 규장각 소설로 알려진 『태원지』의 경우 임치균(2009), 오화(2014), 홍연표(2015) 등의 연구가 있었고, 1907년 일본 박문관(博文館)에서 출간한 에미스이인(江見水蔭, 1869~1934)의 『실지탐험포경선(實地探險捕鯨船)』에 대한 임상석(2018), 허영란(2019), 중국 위원(魏源)의 『해국도지(海國圖志)』에 관한 이민숙(2017)의 연구 등은 논점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탐험 요소’를 전제로 한 연구에 해당한다.

선행 연구를 참고할 때 소설의 주제 의식이나 배경, 또는 주요 모티프를 준거로 한 ‘탐험소설’ 또는 ‘탐험문학’이라는 유형 설정이 가능하다. 비록 정치한 문학 이론은 아니지만 주제와 배경, 모티프를 사용한 소설 유형 설정 가능성은 1902년 요코하마에서 창간된 중국어판 『신소설(新小說)』이라는 잡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잡지에서는 소설의 유형을 ‘역사소설’, ‘정치소설’, ‘철리과학소설(哲理科學小說)’, ‘군사소설(軍事小說)’, ‘모험소설(冒險小說)’, ‘탐정소설(探偵小說)’ 등의 유형을 설정한다. 이 유형은 소설

2) 최영호, 「한국인의 해양 도전 정신과 문학적 관심 - 100년 전 한국 최초의 남극탐험 소설을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14, 국제비교한국학회, 2006, 229쪽.

3) 이승은, 「고전소설 속 바다 형상과 근대적 변모」, 『고전과 해석』 27, 고전문학한문학회, 2019, 91~118쪽.

의 내용과 형식을 고려한 것으로, 모험소설은 『로빈슨표류기(魯敏遜漂流記)』와 같이 “국민을 원유(遠遊)하여 모험정신을 격려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며, 철리과학소설은 법국 구로세 저 『해저여행(海底旅行)』과 같이, “소설 형식을 빌려 철학 및 격치학을 밝히고 재료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⁴⁾ ‘중국 유일의 문학보(文學報)’를 천명한 이 잡지에서는 “소설은 사람을 깊이 감동시킨다. 태서에서 문학을 논하는 자가 반드시 소설을 제일로 꼽는 것이 어찌 이러한 종류의 문제로서 그 사정을 투시하고 사회의 정황을 묘사하여 천지의 비어 있는 곳을 비정(批正)하는 일은 일상의 문장가가 미칠 바가 아니다.”라고 하면서⁵⁾, 민중 계몽에서 소설의 역할이 적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잡지를 주관했던 사람은 그 당시 일본에 머물렀던 량치차오(梁啓超)로, 그는 「소설과 군치의 관계(小說與群治之關係)」에서도 “한 국민을 새롭게 하고자 하면 불가불 먼저 소설을 일신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⁶⁾ 그는 소설의 효용을 “사람을 다른 세계로 이끌며 그가 일상 접촉하는 공기를 변환시킨다.”라고 역설한다. 이것이 흔히 알려진 량치차오의 ‘훈(熏: 스며들), 침(浸: 배어들), 자(刺: 자극함), 제(提: 끌어들이)’를 기본으로 하는 소설의 효용론이다.⁷⁾ 이 효용론은 근대 한국의 소설 장르 형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며⁸⁾, 소설의 유형 분류에서 내용(주제

4) 『新民叢報』第14號, 1902.7.15. 別紙. 中國唯一之文學報 新小說. 五. 哲理科學小說: 專借小說以辨明哲學及格致學其取材皆出於譯本(一. 共和國 希臘大哲柏拉圖著, 一. 華嚴界 英國德麻摩里著, 一. 新社會 日本矢野文雄 著, 一. 世界未來記 法國埃剛著, 一. 月世界一周, 一. 空中飛行, 一. 海底旅行) 六. 軍事小說: 專以養成國民尚武精神爲主其取材皆出於譯本(題未定) 七. 冒險小說: 如魯敏遜漂流記之流以激厲國民遠游冒險精神爲主(題未定)

5) 『新民叢報』第14號, 1902.7.15. 別紙. 小說之消感人深矣. 泰西論文學者 必以小說首屈一指 豈不以此種文體曲折透達淋漓變致 描人羣之情狀 此批天地之窾奧有非尋常文家所能及者耶.

6) 梁啓超(1902), 小說與群治之關係, 『飲水室文集』, 廣智書局.

7) 김은희, 「양계초(梁啓超)의 소설론(小說論) 연구(研究)」, 『중국문학』 19, 한국중국어문학회, 1991, 115~130쪽.

8) 송현호, 「애국계몽기 소설 장르의 형성과 梁啓超의 역할」, 『인문논총』 6, 아주대 인문과학연구소, 1995, 109~128쪽.

의식, 배경, 모티프 등)을 준거로 사용할 수 있음을 뚜렷이 보여준다.

이처럼 탐험문학은 호기심과 동경, 모험을 중심 요인으로 하며, 인물의 탐험 기록을 중심으로 하는 '전기', 상상을 바탕으로 한 '탐험소설', 실제 탐험지와 관련된 '실기(實記)'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2) 근대 한국 탐험문학의 분포

근대의 탐험문학은 다수의 여행기와 마찬가지로 탐험 대상이 세계화되며, 사상의 근대성과 표현 면에서 발전된 서사 양식을 특징으로 한다. 한국 근대 탐험문학은 1900년대 이후 서구와 일본, 중국과의 지식 교류를 통해 형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된다. 1900년부터 1910년까지 신문, 잡지, 단행본류를 조사할 경우 대략 15편의 작품이 발견된다.⁹⁾ 이 작품들은 '전기'(4편), '소설'(7편), '실기'(4편)로 유형화할 수 있다.¹⁰⁾

전기는 콜럼버스 2편, 마젤란 1편, 콜럼버스와 마젤란을 함께 다룬 것 1편으로 확인되는데, '역사담'이나 '사전(史傳)'과 같은 교훈적 차원과 '지문학

9) 익명의 심사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시기 탐험문학으로 볼 수 있는 작품 편수는 많지 않다. 특히 7편의 번역 소설이 새로운 문명질서의 번역에 초점을 맞추어 번역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다만 여기에 소개한 탐험문학 자료는 단순히 새로운 지식 수용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모험심, 탐험심을 북돋우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전기문과 실기를 아울러 이 시기 나타난 문학의 새로운 경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10) 『그리스도신문』(1902.5.8.)의 「그루소의 흑인을 얻어 동모험」, 선교사 게일이 저술한 『유몽천자』 권3(1904)의 「그루소之救一黑人作伴」, 『태극학보』 제4호(1906.11.24.)에 소재한 박용희의 역사담 「클럼버스傳」, 『태극학보』 제8호(1907.3.)부터 21호(1908.5.)까지 연재된 「해저여행기담(海底旅行奇譚)」, 『태극학보』 제13호(1907.8.) 「지문학 강담」, 『대한학회월보』 제1호(1908.2.)의 「哥倫布傳」, 『경향신문』 1908년 7월 3일부터 1909년 1월 1일까지 27회 연재된 「파선밀스(破船密事)」, 『소년』 제1년 제1권(1908.11.)~제2권(1908.12.)의 「거인국 표류기(얼니버 유람기)」, 제2년 제2권~제3년 제6권의 「로빈슨 無人絶島漂流記」 제2년 제6권의 「快男兒 消遣法-最新 南極探險家」, 제3년 제6권 「北極到達 兩大快男兒-北極探索史蹟-」, 『대한홍학보』 제10호(1910.2.)와 제3호(1910.3.)에 소재한 「西藏의 概觀」 등과 같은 신문과 잡지에 소재한 전기, 번역소설과 김찬(金贊, 1908)이 역술한 『絶世奇譚 羅賓孫漂流記』(의진사) 등이 그것이다.

강담'을 보충하기 위한 학술적인 차원에서 쓰인 전기문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떤 형태이든 이 시기의 탐험가에 대한 전기는 인물의 행적이나 감정 서술 등에서 작품으로서의 근대성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태극학보』 제4호에 게재된 박용희(朴容熙)의 「역사담 콜럼버스傳」에서는 “콜럼버스가 여왕 이사벨라의 찬조를 받고 불굴의 용사 120인과 원정선 세 척을 갖추고 서력 1492년 9월에 파로스 항을 출발하였다. 당시에 구주의 이름 있는 단체가 콜럼버스의 몽상적 기도와 이사벨라의 공상적 야심을 매도하고 조롱하지 않는 자 없었다.”와 같이¹¹⁾, 사실과 감상, 가치 평가를 혼합하여 행적을 서술하고 있다. 이 태도는 학술적 차원에서 '지문학'을 보충한 『태극학보』 제13호의 「지문학강담」에 수록된 콜럼버스와 마젤란의 행적 설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¹²⁾ 연구생이라는 필명으로 발표된 이 전기문에서는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 갖는 의미와 신대륙 발견을 깨닫지 못한 콜럼버스에 대한 안타까움 등이 서술자의 감정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는 근대 지식의 유입과 근대식 학제 도입 이후 다수의 교과서를 통해 전해진 역사 기록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주목할 것은 7편의 번역소설인데, 가장 많이 번역된 것은 다니엘 디포의 『로빈슨크루소』이다. 이 소설의 번역본은 『유몽천자』권3(초판은 1904년에 발행되었으나 그 이전에 편집되었을 것으로 추정됨)의 「그루소가 흑인 한 사람을 구조하여 함께 함(그루소之救一黑人作伴)」, 『그리스도신문』 1902년 5월 8일자 「그루소의 흑인을 얻어 동모함」, 『소년』 제2년 제2권부터 제8권에 연재된 「로빈슨 무인절도표류기(無人絶島漂流記)」가 있다. 이 가운데 『유몽천자』의 번역물은 선교사 게일(J.S.Gale)이 번역한 것으로 교과서의 제재이며, 『그리스도신문』은 이 번역본을 순국문으로 다시 옮긴 것이다.¹³⁾ 『소년』 소재 번역본은 최남선이 번역한 것으로 김병철(1975)에서

11) 朴容熙, 「歷史談 第二回 콜럼버스傳」, 『太極學報』 14, 太極學會, 1906, 22~23쪽.

12) 研究生, 「地文學講談(一)」, 『太極學報』 13, 太極學會, 1907, 36쪽.

밝힌 바와 같이, 요코야마야스조(横山保三, 1857) 또는 이노우에쓰토무(井上勤, 1897) 등의 번역물을 대본으로 중역(重譯)한 것으로 추정된다.¹⁴⁾ 또한 김찬(1908)의 『절세기담 라빈손표류기(絶世奇談羅賓遜漂流記)』(의진사)는 서문이나 목차 등을 고려할 때 요코야마야스조의 번역본을 대상으로 한 것이 틀림없다.¹⁵⁾ 또 하나의 번역물은 『태극학보』 제8호(1907.3.24.)~제21호(1908.5.12.)에 연재된 박용희(朴容喜)의 「해저여행기담(海底旅行奇談)」으로, 이 작품은 프랑스 쥘 베른이 1869년에 발표한 『해저2만리(海底二萬里, *Vingt mille lieues sous les mers*)』를 대상으로 한 번역물이다. 박용희의 번역물은 오오히로산지 역(大平三次, 1888), 『오대주중 해저여행(五大洲中海底旅行)』(東京文事堂)을 중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⁶⁾ 이와 함

-
- 13) 신미삼, 「이석훈 번역 로빈손漂流記 연구」, 『현대소설연구』 77, 한국현대소설학회, 2020, 344쪽. 이 논문에서는 『그리스도신문』 소재 번역물을 번역자 미상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출처가 ‘유몽천자’이므로 게일이 번역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게일은 1925년 이원모와 함께 조선야소교서회에서 『그루소표류기』라는 제목으로 다시 번역서를 출간한다. 이 책은 현재 야단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 14) 김병철, 『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 을유문화사, 1975, 172쪽. 이 책에서는 『소년』 소재물은 ‘일역술자 미상(日譯述者未詳)’이라고 하였다. 일본의 경우 1850년경 구로다이 키츠로(黒田行次郎) 번역의 『표류기사(漂流紀事)』가 익명으로 유포되었고, 1857년 요코야마 야스조(横山保三) 번역의 『로빈손표행기략(魯敏遜漂行紀略)』 등의 번역본이 있었다. 이때 로빈슨을 ‘로민손(魯敏遜)’으로 옮긴 것은 ‘敏’의 일본식 한자 발음이 ‘빈(ピン)’이기 때문이다. 이들 번역물 가운데 『소년』 소재 번역물의 대상으로 추정되는 것은 요코야마 야스조의 번역본으로 보이는데, 그 까닭은 『소년』 제2년 제2권(1909.2.) 서두 부분, 즉 로빈슨의 자기 술회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 15) 김병철(1975), 위의 책에서도 김찬(1908)의 번역본은 이노우에쓰토무(1897)의 『絶世奇談魯敏孫漂流記』(博聞社)를 번역한 것이라고 하였다. 다만 일본의 번역본에서 ‘로빈손(魯敏孫)’을 사용한 데 비해 김찬(1908)에서 ‘라빈손(羅賓遜)’으로 표기한 이유는 밝혀내기 어렵다.
- 16) 김병철, 1975, 위의 책. 이 시기 일본어 번역본으로 오오히로산지 역(大平三次, 1888), 『오대주중 해저여행(五大洲中海底旅行)』(東京文事堂), 이노우에쓰토무 역(井上勤, 1884), 『육만영리 해저기행(六萬英里 海底紀行)』(博聞社) 등이 있었다. 그런데 오오히로산지 번역본은 “불국 슐스펜 원저(佛國 シュールスベン 原著)”로 표현하였으며, 이노우에쓰토무 번역본은 “영국 쥘스 벤(英國 ジュールス.ベルン)”이라고 표현하였다. 박용희 번역본에서 ‘법국 슐스펜’이라고 한 것은 오오히로산지 번역본을 따른 셈이며, 각 횡수에 사용된 제목에서도 이노우에쓰토무 번역본과 박용희 번역물에는 다소의 차이가 보인다.

계 『경향신문』(1908.7.3.~1909.1.1. 27회 연재)에 연재된 「파선밀스」는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1850~1984)의 『The Wrecker』(1892, 뉴욕 Charles Scribner's Sons)를 번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⁷⁾ 이를 종합해 볼 때, 근대 한국의 탐험소설은 계일의 번역본과 『경향신문』 연재물인 「파선밀스(破船密事)」와 같이 선교 활동에서 번역된 경우가 있으나, 이 작품의 경우 “리무근(李無根)이 파파 로인으로 식골에 은거하야 손즈들을 드리고 이십여 년 전에 지낸 일을 리약이하기를 이러케 하니”라는 서두에서 일종의 변안(飜案) 형식의 번역을 취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대부분 일본문 번역본을 중역(重譯)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탐험 기록과 관련된 기록물은 전통적인 ‘실기(實記)’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엄밀히 말하면 ‘실기(實記)’는 “사실 기록”을 의미한다. 근대계몽기 작문 교과서인 최재학의 『실지응용작문법』에서 기(記)의 본질이 ‘서사를 위주로 하는 사실 기록’이며, ‘의논의 가미된 것은 변체(變體)’라고 하고, 이 각종의 『실용작문법』에서 전기문의 유형을 ‘단순히 역사적 사실만을 기록하는 사전(史傳)’, ‘다소 논평을 부가하는 평전(評傳)’, ‘허상을 가탁(假托)하여 서술하는 탁전(托傳)’을 구분했듯이, 이 시기 ‘실기(實記)’는 다수의 사전(史傳) 관련 서명(書名)에도 쓰인다.¹⁸⁾ 그렇기 때문에 탐험문학으로서의 실기는 ‘탐험기(探險記)’로 한정해야 한다. 이 점에서 근대 신문, 잡지, 단행본으로서의 탐험기는 많지 않다. 다만 서양인들이 남긴 한국 여행기¹⁹⁾의

17) 다지마테쓰오, 「파선밀사 원본 연구-원본 『The Wrecker』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43, 한국문학연구학회, 2011, 129~162쪽.

18) 예를 들어 김봉기, 『홍무왕실기』, 김병선방, 1923, 최찬식, 『리순신실기』, 박문서관, 1925 등과 같은 전기문이 이에 해당한다.

19) 예를 들어 HN 알렌 『조선견문기』, GW 길모어 『서울풍물지』, IB 비숍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등과 같은 여행 기록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1997~2000년 신복룡 교수가 ‘한말외국인기록’ 번역 시리즈를 출간한 바 있으며, 학계에서도 이들 여행기와 관련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유형의 자료를 ‘탐험기’로 명명하기는 어렵다.

경우 탐험기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탐험기가 호기심과 동경, 모험을 위주로 한다는 점에서 탐험문학의 본령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시기 탐험기로 볼 수 있는 자료는 『소년』에 소재한 ‘북극 탐험 사적’, ‘남극 탐험 사적’, ‘서장 개관’ 등 극히 일부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3. 지식 유통의 관점에서 본 근대 탐험문학의 형성과 의미

1) 근대의 지식 유통과 탐험문학의 형성

탐험문학의 유형으로 탐험가의 전기, 탐험 소재 소설, 특정 대상에 대한 탐험기가 출현한 것은 국민 계몽의 차원에서 모험심을 바탕으로 한 진취적 기상을 고취하고, 애국정신을 격려하며, 문명 진보를 통한 부국강병의 희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 동기는 근대의 각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동아시아의 경우 근대 탐험문학이 활발했던 국가는 메이지 이후의 일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근대문학의 시대 상황이 갖는 특징과 관련한 김채수(2014)의 연구에서 논의된 것처럼, 제1기 일본 근대문학은 1877년 도쿄 대학 설립, 사이코다카모리의 자결 등에 따라 계몽사상의 전파와 반문명개화운동 등이 혼재하던 시기로 규정된다. 그럼에도 공리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계몽사상이 전파되고, 정부를 중심으로 한 계몽운동과 후기 민권·국권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정치소설과 탐험 소재 번역소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²⁰⁾ 허석(2005)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시기는 영어 Literature를

20) 김채수, 「근대일본문학의 시대적 상황과의 관련성에 대한 고찰」, 『일본문화연구』 49, 동아시아일본학회, 2014, 55~92쪽. 이 논문에서는 요시다세이치(吉田精一, 1975)의

번역한 '문학' 개념이 정립되고,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통치 정책과 함께 해외주 일본인이 급증하면서 일본어 저작물과 번역물이 해외로 급속하게 번져나갔다.²¹⁾

일본에서의 탐험문학은 메이지 초기의 문명론과 일본제국주의의 팽창에 따른 국가이데올로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1850년경 구로다이키츠로(黒田行次郎)가 『로빈슨크루소』를 번역한 『표류기사(漂流紀事)』(발행지 미상, 手記本)가 익명으로 유포되기 시작하였고, 1857년 요코야마야스조(横山保三)의 『로빈슨표행기략(魯敏遜漂行紀略)』(瓊華書屋), 가아시마주노스케(川島忠之助)의 『80일간의 세계일주』(1878, 慶應義塾出版部), 이노우에쓰토무(井上勤)의 『육만영리 해저기행(六萬英里 海底紀行)』 1884, 博聞社, 『97시 27분간 월세계여행(九十七時二十分間 月世界旅行)』 1886, 三木佐助, 『절세기담 로빈슨표류기(絶世奇談 魯敏遜漂流記)』(1887, 博聞社), 『통신 80일간 세계일주(通信八十日間 世界一周)』(1888, 自由閣宰), 오오히로산지(大平三次)의 『오대주중 해저여행(五大洲中 海底旅行)』(1888, 東京文事堂) 등의 번역물이 이어졌다. 이 가운데 최초의 번역본으로 보이는 구로다이키츠로의 『표류기사』는 '화란역자 자서(和蘭譯者 自叙)'와 '범례'를 두었는데, '자서'에서는 로빈슨크루소(映喆喇國 魯敏遜嘔瑠須)가 세계에 뜻을 두고 대양 항해를 하다가 각종 모험을 하게 되는 과정을 근거로 책을 읽음으로써 온갖 고난을 이겨내고 인세의 전변(轉變)을 이룰 수 있음을 강조

『현대일본문학사』(筑摩書房)의 근대일본문학사 시대 구분 사례에 따라 메이지 원년(1886)으로부터 쓰보우치쇼오(坪内逍遙, 1886)의 『소설신수(小説神髓)』가 출간되기까지를 제1기, 후타바테이시메이(二葉亭四迷)의 『부운(浮雲)』으로부터 1905년까지를 제2기, 시마자키도손(島崎藤村, 1906)의 『파계(破戒)』로부터 1925년까지를 제3기, 1926년부터 패전까지를 제4기로 구분하고, 제1기의 시대상황을 '화혼양재(和魂洋才)'의 정신에 기초한 근대화 과정으로 규정했다. 이 시기 대표적인 번역 작품으로 공상과학소설가와 시마주노스케(川島忠之助)의 『80일간의 세계일주』(프랑스 쥘 베른 지), 역사소설 미야자카무류(宮崎夢柳)의 『자유의 개가(自由乃凱歌)』(프랑스 뒤마 지)가 있다고 하였다.

21) 허석, 「近代日本文學の海外擴散과 國家이데올로기에 대한 研究 -明治時代 韓日兩國의 譯物을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24, 한국일본어문학회, 2005, 413~438쪽.

하고, 번역을 통해 영길리의 제도를 이해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처럼 일본에서 『로빈슨크루소』를 빈번히 번역한 까닭은, 온갖 고난을 이겨내고 인세 전변을 이룬 이야기를 통해 모험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계몽의식이 전제되고 있음은 틀림없다. 요코야마야스조의 『로빈슨표류기략』 서문에서 ‘양인(洋人)은 이 책으로써 훈몽(訓蒙)의 디딤돌로 삼는다.’는 표현에서도 등장한다. 즉 로빈슨의 모험담이 계몽의 초석이 된다는 뜻이다.

일본에서의 탐험소설 번역이 문명론과 계몽의식에 기인하고 있다면, 다수의 ‘탐험기’는 근대 일본의 해방론(海防論)이나 제국주의 일본의 민족의식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 일본은 19세기 초 쇄국정책과 러시아인의 내항(來航), 이양선 출몰과 이국선 격침령 등을 발표하면서 바다를 방위해야 한다는 사상이 번지기 시작했다.²²⁾ 그 중 하나로 사사모리기즈케(笹森儀助, 1884)의 『남도탐험 일명 유구만유기(南島探險一名: 琉球漫遊記)』(東京 惠愛堂) 서문을 참고할 수 있다.

[南島探險一名: 琉球漫遊記]

나라를 지키는 일과 가정을 지키는 일은 진실로 하나의 이치이다. 사람이 가택을 점유하면 주위에 반드시 담을 쌓고 곁에는 반드시 문을 만든다. 문은 반드시 자물쇠를 만들어 이로서 도적을 예방하고 이로써 가족의 안녕을 보호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형세를 보면 사방을 방비하나 과연 완전하다고 할 수 있는가. 문호는 과연 자물쇠가 있는가. 고요한 밤에 깊이 생각하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깨달을 수 있다. (중략) 세인이 동양 정치를 말하면 반드시 시베리아 철도를 부르짖으니 남양 척식(南洋拓殖)을 논하는 것은 쓸데없이 외국 부속도서에 이민을 강구하는 것이니 소위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한다. 내가 남도(南島)에 십만이 이민할

22) 남영우, 「하야시 시헤이의 생애와 업적」, 『영토해양연구』 11, 동북아역사재단, 2016, 118~157쪽. 송석원, 「사쿠마 쇼잔(佐久間象山)의 해방론과 대 서양관」, 『한국정치학보』 37-5, 한국정치학회, 2003, 27~49쪽.

땅이 있음을 고려하고 또 조야 정치가 흥업 국방에서 여러 가지로 떠드나 경비함을 보내(영국에서 거문도를 점령한 사실이 있으니 남쪽 경계를 도외시하는 것은 기이하게 보인다.) 남쪽 경계를 지키고 아울러 50여 섬에 있는 폐하의 적자를 보호하는 사실이 있음을 듣지 못했다.²³⁾

번역소설의 계몽 담론과는 달리, 탐험기는 조사 목적에 따라 탐험 내용이 달라지며, 보고 형식의 글을 취할 경우가 많다. 사사모리기즈케가 유구(오키나와)에 관심을 기울인 까닭은 바다의 문호(門戶)를 지켜야 한다는 사상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해양 진출을 꾀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특히 일본제국주의의 성장에 따라 탐험 지역도 점차 확장되는데, 그 대상은 대만, 조선, 중국으로부터 1930년대 만주와 러시아, 동남아와 인도 등지로 확산된다.

모험심을 고취하여 국민계몽을 이루고자 하는 차원에서의 비롯된 탐험에 대한 관심은 근대 중국도 비슷하다. 앞서 살펴본 1902년 량치차오가 중심이 되어 발행한 『신소설(新小說)』 잡지에서는 “소설가의 말을 빌려 국민의 정치사상을 발기하고 그 애국정신을 격려하는 것”을 발행 취지로 내세웠다. 모험소설은 국민을 격려(激勵)하고, 군사소설은 국민의 상무정신을 양성한다고 믿었다. 또한 량치차오는 『음빙실문집』 ‘논진취모험(論進取冒險)’에서 “천하에 중립이라는 것은 없다. 맹진하지 않으면 넘어져 되보하고 만다. 인생과 우환은 함께 온다. 진실로 곤란을 두려워하면 위험에 빠진다.

23) 笹森儀助, 『南島探險一名: 琉球漫遊記』, 東京 惠愛堂, 1884. 國ヲ守ルト 家ヲ守ルト 固ト一理ナリ 人ノ家宅ヲ 占ムルヤ 周圍必ラス 垣ヲ結ヒ 表裏必ラス 門戸ヲ作り 門戸必ラス 管鑰ヲ施シ 以テ 盜賊ノ人ルヲ防キ以テ 家族ノ安寧ヲ保ツ 今我國ノ形勢ヲ觀ルニ 四境ノ防備 果シテ 全キヲ得ルカ 門戸果シテ 管鑰アルカ 靜夜顧念スレハ 說ヲ待タスシテ 悟ルモノアラン. (中略) 世人東洋政略ヲ言ヘハ 必ラス ‘シベリア’ 鐵道ヲ唱ヘ 南洋拓殖ヲ論スル者ハ 徒ラニ 外國屬島ニ移民ヲ構スルノミ所謂燈臺下暗シ 我カ南島ニ十萬ノ移民地アルヲ顧ミス 又朝野政事家興業國防ニ 囂囂喃喃スルモ未ターノ警備艦ヲ發シ(英ニ巨文島占領ノ實アルモ 我カ南境ハ度外ニ置クノ奇觀アリ) 南境ヲ守リ併セテ五十餘島ノ 陛下ノ赤子ヲ保護スルノ事實アルヲ聞カス.

내가 보건대 금일 천하만국 가운데 그 퇴보의 속도와 험난함이 극에 달한 것은 중국만 한 곳이 없다.”라고 개탄하면서²⁴⁾, 중국의 시대상황에서 모험 진취의 정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탐험가 콜럼버스는 중요한 예증 사례가 된다. 그는 또한 ‘논의력(論毅力)’에서 ‘군센 힘’이 있으면 성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다고 단정한다. 콜럼버스가 신세계를 개척할 때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 재산을 잃고 스페인 왕의 명을 받아 힘들게 항해하여 대륙을 발견한 것은 ‘의력(毅力)’의 상징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중국에서도 탐험 전기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정 지역과 관련된 지리서, 여행서 등이나 지도류(地圖類) 등이 저작되고, 탐험소설이 번역되기도 하였다. 『신민총보』 제25호(1903.2.11.)의 광지서국 출판목록에 등장하는 지리서와 지도류는 중국에서의 탐험기 발달 가능성을 보여주며²⁵⁾, 1873년 여작거사(蠡勺居士)의 『흔석한담(昕夕閑談)』은 『신보(申報)』에 연재되었던 『걸리버여행기』 번역본으로 알려져 있다.²⁶⁾

근대 한국에서 일본과 중국의 탐험 전기, 번역 소설, 탐험기가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종합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다만 근대 한국의 탐험문학 형성 과정에서 1900년대 이후 일본에서 번역된 서양 탐험소설을 중역(重譯)하거나 량치차오의 『음빙실문집』이 광범위하게

24) 梁啟超, 『飲水室文集』上, 廣智書局, 1902. 「論進取冒險」, 天下無中立之事. 不猛進斯倒退矣. 人生與憂患俱來. 苟畏難斯落險矣. 吾見天下萬國中 其退步之速與險象之劇者 莫吾中國若也. 吾爲此懼.

25) 『新民叢報』第25號. 1903.2.11. 이 광고에 등장하는 지리서로는 『만주 여행기』(일명 흑산수록), 『양자강 유역 현세론』, 『외국 지리 문답』, 『동아 구안지』, 『동아 각항지』, 『중국 강역 연혁실략』, 『만국 상업 지리지』 등이 있으며, ‘여도류(輿圖類)’로 『암사세계대지도』, 『중국암사지도』, 『중국 십팔성 지도』, 『중외 방여전도』, 『동아신지도』, 『극동지도』, 『동아삼국지도』, 『최신 만주도』, 『학교 요품 경척지구의』, 『곤여전도』, 『세계양반구도』, 『만국 신지도』, 『최근 대청국 강역 분도』 등이 있다.

26) 광정례·오순방·김봉연·조신원(2001), 중국 근대번역문학의 발전 맥락과 주요 특징, 『중국어문논역총간』 7, 중국어문논역학회, 233~258쪽.

유포되면서 문명 진보를 위한 계몽의식, 애국심을 기르기 위한 모험정신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탐험가 전기와 번역소설이 널리 유통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담론은 『독립신문』 1899년 11월 18일자 논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논설]

서력 一千四百四十二년에 가륵파라 호는 이가 의대리국에서 낫는디 그 사람이 평상에 벼를 부리기로 싱업을 삼어 흥상 바다가으로 티왕 하며 디리를 궁구하야 여러 희만에야 비로소 쌍덩이가 둥글어 동서가 가히 통헿홀 만홀 것을 썩다를 썩 아니라 대서양 밧에도 큰 룽디가 쏘 흔 잇슬 것을 의심 업시 밋으나 (중략) 그 후로 구라파 빅인종들이 만 히 들어가 사는디 토디를 기척호고 인물이 변성호니 이것은 곳 남북 아미리가라. 그 곳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륵파의 스업을 칭송치 안는 이가 업고 그 굉장호 명예가 태서 각국에 전파호엿스니 일노 좇차 보 건디 동양 사람의 물에 싸이 모가 잇다는 것이 엇지 어리석지 아니리 오. 근일에 지구(地球) 덩이와 지구 그림과 디리 전디라 호는 글이 더라 전파되얏스니 쏘들 궁구호여 보시오.²⁷⁾

이 글은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과 관련된 사적을 토대로 지구가 둥글며 동서가 통행할 수 있음을 계몽하고자 한 의도에서 쓰인 논설이다. 이는 김영민·구장률·이유미(2003)에서 이른바 ‘서사적 논설’이라고 규정한 형태의 논설로²⁸⁾, 콜럼버스가 항해 과정에서 겪은 고난과 신대륙 발견의 기쁨이 묘사되고, 궁극적으로 ‘지구덩이’와 ‘지구그림’을 활용하여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기를 촉구한다. 이 서사적 논설은 탐험가 전기문이나 탐험기를 탄생하는 시대 담론이 무엇이었는지 적절히 설명한다. 이

27) 『독립신문』 1899.11.18. 논설.

28) 김영민·구장률·이유미, 『근대계몽기 단형서사문학 자료전집』 상·하, 소명출판, 2003.

배경에서 『소년』 잡지가 발행된 후 『황성신문』 1908년 11월 27일 게재된 「소년계(少年界)의 신도선(新導線)」이라는 논설은 ‘모험정신’과 ‘탐험’이 필요한 이유를 더 적극적으로 웅변한다.

[少年界에 新導線]

余가 熟熟히 我韓 現在에 社會情況을 觀察호건디 普通 二拾歲以上 人物은 學皆 過去時代에 一種 儉安姑息으로 遺傳호는 習性이 腦髓에 癱結호야 肢體가 柔軟호고 精神이 朦朧호야 다만 厚褥溫突에 甘眠을 做得함이 可호고 能히 活潑호 志氣와 健全호 體力으로 目無險境호고 手無難事호야 移山轉海호며 驚天動地호는 大聲輝를 發表호는 者는 概乎難見 일식 國家와 社會의 前途를 爲호야 實로 寒心을 不禁호지라. 오작 少年界에서나 新空氣를 吸收호고 新精神을 培補호야 冒險勇進의 氣概와 堅忍耐久의 性質을 養成호야스면 乙支文德、金庾信의 英雄魂이 大韓世界에 更히 發現호가 함으로 一般 少年界를 對호야 希望함이 深切호고 勸勉함이 申複호야 一寢一食에 不能暫忘터니 乃我韓 少年界에 先導者로 出現호는 一個 少年을 對하니 卽 新文館主人 崔昌善 氏의 發行하는 少年雜誌라. (中略) 幸히 拾分 猛省호고 百倍 奮勵호야 冒險勇進의 氣概와 堅忍耐久의 性質로 右少年雜誌의 期望과 如히 少年 全體에서 少年 大韓國을 建立호지이다. 惟我少年 諸君이여.²⁹⁾

이 논설은 『소년』 잡지 발행 직후 ‘젊은이들의 모험 용진하는 기개와 건인내구의 성격’을 배양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쓰인 글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소년’은 ‘성숙하지 않은 사내아이’라는 뜻의 용어가 아니다. 소년(少年)은 문자 그대로 ‘젊은이’를 뜻하는 용어이며, 남녀 성별이나 나이를 제한하여 사용한 용어가 아니라 ‘모험용진’, ‘건인내구’가 가능한 인물들이다. 이정신은 민정기(2009)의 량치차오(梁啓超)의 ‘소년중국설(少年中國說)’에 대

29) 『황성신문』 1908.11.27. 논설, 少年界에 新導線.

한 논의나³⁰⁾ 김경남(2015) 『소년』 잡지 소재 다수의 기행문의 시대의식에
서 쉽게 확인된다.³¹⁾ 『소년』 잡지에 ‘북극 사적’, ‘남극 사적’과 헤딘 박사
의 ‘서장 탐험’ 등의 기록이 수록된 것도 이와 같은 시대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2) 근대 탐험문학의 의미와 한계

근대의 탐험문학은 문명 진보를 위한 지식 탐구,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모험심과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계몽의식을 배경으로 출현하였다. 이
는 일본, 중국의 번역물과 탐험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의 탐험문학에서는 문명론과 애국론뿐만 아니라 종교 담론까지 혼재된 형
태의 번역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7편의 탐험소설은 대부
분 문명론과 종교적 계몽의식을 담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로빈슨
크루소’이다. 이 작품이 한국인에게 알려진 것은 1880년대 후반으로 추정
된다. 1886년 상해에 유학했던 윤치호는 그의 일기에서 영국 서점에 가 10
전을 주고 『걸리버여행기』, 『로빈슨 크루소』, 『아라비안나이트』를 사다 읽
었다고 한다.³²⁾ 이때부터 『로빈슨크루소』는 일부 지식인들의 독서물이 되
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1902년 『그리스도신문』과 1904년 계일이 저작
한 『유몽천자』에 처음으로 번역본이 수록된다. 『그리스도신문』의 「그루소
의 흑인을 얻어 동모함」은 그루소라는 인물이 주안버난티스라는 섬에 표
류하여 야만인과 조우하고, 그들에게 쫓기는 흑인을 구하여 ‘육일(六日)’³³⁾

30) 민정기, 「梁啓超의 「少年中國說」 독해 - ‘소년/청년’ 소환의 중국적 맥락에 대한 고찰」,
『중국현대문학』 50,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09, 1~24쪽.

31) 김경남, 「소년사상의 형성과 『소년』 소재 기행문의 시대의식」, 『우리말글』 66, 우리말
글학회, 2015, 241~266쪽.

32) 『윤치호일기』 권1, 1886.9.14. 그가 이 책을 읽었다는 기록은 1888년 1월 13일자 일기
에도 나타난다.

33) 기독교적 요일 관념에서 6일은 ‘금요일’에 해당한다. 원전에서 ‘프라이데이’라고 한 것

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사람고기를 먹고자 하는 6일을 경계하고 깨우쳤다는 주요 부분의 요약에 해당한다. 『유몽천자』 권3의 「그루소之救一黑人作伴」은 『그리스도신문』의 순국문체를 현토체에 가까운 국한문체로 옮긴 것이다.³⁴⁾ 이에 비해 『소년』 소재 번역본은 종교적 계몽의식과 문명 담론, 애국심 고취 등이 혼합된 형태로 나타난다. 이 번역본은 다음과 같이 끝을 맺는다.

[로빈슨 무인절도 표류기 결말]

나는 지금 나이 七十二歲인데 그만 다시는 내 몸을 고통케 아니하기로 하고 이 오랜 동안 恒常 頗(이) 업도록 도라보아 주신 하나님의 恩惠를 汲히 感謝하오며 또 내 平生에 지내본 旅行보담 더 永遠한 저 生길을 닥그면서 날을 보내노이다. (중략) 한가지 願하난 것은 가장 光明스럽고 榮譽 잇슬 前途를 가진 新大韓 少年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라 형편이 三面으로 滋味의 주머니로 보내의 庫人 집인 바다에 돌닌 것을 尋常한 일노 알지 말어 恒常 그를 벗어나고 그를 스승하고 또 거기를 노리터로 알고 거기를 일터로 알어 그를 부리고 그의 脾胃를 마초기에 마음 두시기를 바라옵나니 엇접지 아니한 말삼이나 汲히 드러주시오. 그런데 한마디 부쳐 말할 것은 우리 모양으로 私利와 작난으로 바다를 쓰실 생각 말고 좀 크게 늙게 人文을 爲하야 國益을 爲하야 眞實한 마음과 精誠스러운 뜻으로 學理 研究・富源開發等 조흔 消遣을 잡으시기를 바람이외다. 여러분은 應當 이 늙은 사람보담 더욱 滋味 잇난 海上 經歷이 잇슬 터이라 좀 들녀 주시구려. (完結)

을 의역하여 '6일'로 표현하였다.

- 34) 『유몽천자』 권3에서는 구출한 흑인의 이름을 '6일' 대신 '토요'라고 표현했는데, 번역 과정에서 번역의 조력자가 요일 관념을 혼동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1890년대 이후 게일이나 헐버트와 같은 선교사는 자신들의 이름으로 다수의 교과서를 저술하거나 역술 서적을 남겼다. 이들이 저역 활동을 할 때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했으므로, 다수의 조력자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1900년대 게일의 저작 활동에서도 조력자가 있었음은 틀림없다.

이 결말에서는 모험이 끝난 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신대한 소년(新大韓 少年)’에게, “국익을 위해 진실한 마음과 정성스러운 뜻으로 학리 연구·부원 개발”에 힘쓸 것을 당부한다. 즉 모험보다 종교 담론과 문명론을 기반으로 한 애국 담론으로 귀결한 셈이다. 원전에 없는 이 내용이 부가되는 이유는 당연히 이 시대의 계몽 담론이 배어들었기 때문이다.

근대 한국의 탐험문학은 전기문이나 번역소설, 탐험기 등 전반적인 면에서 양적으로 많지 않다. 그럼에도 이 시기 탐험 소재 작품의 등장은 내용과 소재 면에서 한국 근대문학의 지평을 넓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시기 탐험문학은 이른바 ‘계몽 정신’의 기저 아래 국민교육의 차원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리문학을 민족문화사적 차원에서 연구해야 한다는 취지 아래 기획된 민족문화사연구소(1995)의 『민족문화와 근대성』(문학과지성사) 등에서 오래 전부터 논의해 왔던 것처럼, 근대문화와 계몽성은 불가분의 관계를 이룬다. 이 책에서 이선영은 근대성이 18세기 계몽사상가들에 의해 기획되었음을 간파하고, “객관적 과학, 보편적 도덕률, 자율적 예술이 그 자체의 논리에 따라 발전되도록 하기 위해 구사한 지적 노력”이라는 하버마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계몽 이성은 합리적인 사회 조직과 사고방식의 발전에 의해 인간을 신화·종교·미신의 비합리성에서 해방시켰으며, 권력의 자의적인 전횡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것” 등을 긍정적 성과로 제시하였다.³⁵⁾ 물론 근대성의 표지로 삼는 계몽정신은 서구적 관점의 문명론이나 제국주의의 야욕을 실현하는 도구로 전락할 경우도 많다.

의식의 차원에서 문명과 야만의 대립 구도를 설정하고, 맹목적인 문명

35) 이선영, 「우리 문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근대성 문제의 논의를 계기로」, 『민족문화와 근대성』, 문학과지성사, 1995, 17쪽. 이 책은 총론 3편, 소설론 4편, 시론 3편, 비평론 5편, 토론으로 구성되었다. 이선영과 마찬가지로 최원식의 ‘한국 문학 근대성을 다시 생각하다’에서는 근대 문학의 기점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를 부질없는 짓으로 비판하고 있으며, 이현식의 ‘한국 근대 문학 형성의 사회사적 조건’에서는 제도사와 문학 존재 방식, 공공 영역의 정론(政論) 담론 등의 관계를 논의 대상으로 삼았다.

예찬을 보이는 태도는 번역소설에서 빈번히 나타난다. 이를 잘 나타내는 자료가 ‘로빈슨 크루소’ 번역물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신문』, 『유몽천자』, 김찬(1908), 『소년』 소재 번역물에는 모두 로빈슨이 동반자가 되는 흑인 ‘프라이데이(금요)’를 구출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데 구출된 ‘금요’는 죽은 사람을 보자 식인 충동을 느꼈으며, 로빈슨은 그에게 식인을 하지 말 것을 명령한다. 이 장면이 각 번역본에 모두 등장하는 이유는 원전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번역이나 변안 과정에서 이를 다듬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근대 지식인들에게 ‘문명: 야만’의 대립 구도가 고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번역소설의 유동과는 달리, 한국의 탐험문학에서는 실제 탐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탐험기가 많지 않은데, 이것은 이 시기 한국 탐험문학이 갖는 본질적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우리 스스로 탐험 목표를 세우고, 탐험지를 정하며, 그것을 실천한 사례가 많지 않고, 탐험과 이주(移住)를 목표로 한 제국주의의 침탈상과 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추정은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등에 나타난 1900년대 탐험 관련 기사를 종합해 볼 때, 상당한 근거를 갖는다. 이 두 신문에서는 150여 건의 탐험 관련 기사가 등장하는데, 대부분 영미(英美)·러시아·프랑스 등의 북극과 남극 탐험 기사가 주를 이루며, 1908년 12월 전후로 한국을 방문했던 헤딩 박사의 탐험 연설과 같은 경우도 종로 청년회관에 모인 소수의 회원들만 경청했던 것으로 나타난다.³⁶⁾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인이 저역한 탐험기는 일제강점기 세계일주를 대상으로 한 일부 기행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소재 북극 탐험기, 윌리엄 브루스의 저서를 번역한 이창식 역(1924)

36) 북극과 남극 탐험기는 일제강점기에 본격적으로 등장했는데, 윌리엄 브루스 저·이창식 번역, 『양극탐험기』, 조선기독교문화협회, 1924나 1931년 미국 월킨스 대위의 잠수정 북극 탐험 직후 『동아일보』 1931년 7월 4일부터 7월 19일까지 14회 연재된 「북극의 비고(秘庫)를 개척함」, 『조선일보』 1931년 6월 7일부터 7월 23일까지 43회에 걸쳐 연재된 「북극 항잡 탐험기」 등이 대표적이다.

의 『양극탐험기』(조선기독교문화협회), 이순탁(1935)의 『최근세계일주기』(한성도서주식회사) 등으로 이어진다.³⁷⁾

4. 맺음말

탐험문학은 탐험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을 말한다. 탐험은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곳을 찾아가서 살펴보고 조사하는 일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탐험문학은 모험정신과 진취적 기상이 배어있다. 탐험문학에는 탐험가의 생애나 업적을 다룬 전기문, 탐험을 소재로 한 소설, 실제 탐험 결과를 대상으로 한 탐험기 등 세 가지 유형 설정이 가능하다.

이 글은 탐험가 전기, 탐험을 소재로 한 번역 소설, 실제 탐험과 관련된 탐험기 등을 대상으로 근대 한국의 탐험문학 형성 과정과 배경을 살펴보고, 각각의 작품이 갖는 의미를 규명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 논문에서는 근대의 신문, 잡지, 단행본에서 15종의 작품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유형별로 정리하였다. 그 결과 1900년부터 1910년까지 4편의 전기문, 7편의 번역 소설, 4편의 실기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 글에서 논의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탐험문학의 유형으로 전기문은 콜럼버스, 마젤란을 중심으로 4편이 등장하며, 지리상의 발견과 문명 진보를 위한 지식 보급 차원에서 탐험가의 전기가 관심을 끌게 되었다. 번역 소설은 『로빈슨 크루소』, 『걸리버 여행기』, 『해저여행』 등을 대상으로 한 번역물과 『경향신문』의 ‘파선밀사’ 등 7편이 등장한다. 이들 작품은 일본의 번역본을 대상으로 중역(重譯)한 것이 많으나, 계일의 번역본과 ‘파선밀사’는 일본어 번역본을 대상으로 한

37) 김경남, 『시대의 창-자의식과 재편의 모티프로서 근대 기행담론과 기행문의 발전 과정』, 경진, 2018. 일제 강점기 탐험문학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것은 아니다. 탐험 실기는 『소년』 소재 ‘북극’, ‘남극’, ‘서장’ 탐험 관련 기록만 등장하는데,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둘째, 지식 유통의 관점에서 근대 동아시아의 탐험문학 형성 배경은 국민 계몽 차원의 모험심과 진취적 기상 고취에 있었다. 일본의 경우 1850년대부터 번역 소설과 탐험기가 활성화되었으며 19세기 초 형성된 ‘해방론(海防論)’의 영향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번역 탐험소설이 활발해지는 과정에서 일본의 문학 이론이 정립되기도 하였다. 중국의 경우 량치차오의 사례와 같이 모험심 고취와 국민사상 격려를 배경으로 한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의 탐험문학 형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근대 한국의 탐험문학은 전기문, 번역소설, 탐험기를 종합하더라도 양적으로 많지 않다. 그럼에도 문명 진보와 애국 담론을 기반으로 하는 탐험문학은 한국 근대문학의 지평을 넓히고 문학 양식이 정립되어 가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 시기 전기문이나 번역소설이 ‘문명: 야만’의 대립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기독교적 종교 담론을 바탕으로 ‘야만’을 부정적으로 편취하는 경우가 많은 점은 탐험문학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더욱이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과 모험을 극복하고 그 경험을 실제로 기록한 탐험기가 거의 없는 점은 근대 한국의 시대 상황과 함께 탐험문학 발전 차원에서 근본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자료

韓國教會史文獻研究院 編, 『그리스도신문』1-11, 韓國教會史文獻研究院, 2009.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京鄉新聞』, 弗威文化社, 1978.

_____, 『韓國開化期 學術誌』, 亞細亞文化社, 1978.

中華書局出版, 『中國近代期 刊彙刊 新民叢報』, 中華書局, 上海, 2006.

2. 논저

강현조, 「근대 초기 서양 위인 전기물의 번역 및 출판 양상의 일고찰 -『실업소설 부란극림전』과 『강철대왕전』을 중심으로」, 『사이』 9,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0, 261~293쪽.

곽정례 · 오순방 · 김봉연 · 조신원, 「중국 근대번역문학의 발전 맥락과 주요 특징」, 『중국어문논역총간』 7, 중국어문논역학회, 2001, 233~258쪽.

권영기, 「한일 근대 역사소설 비교 연구」, 동덕여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3.

奇一牧師(J.S.Gale), 『牖蒙千字』 3, 廣學書舖, 1904.

김경남, 「소년사상의 형성과 『소년』 소재 기행문의 시대의식」, 『우리말글』 66, 우리말글학회, 2015, 241~266쪽.

_____, 『시대의 창-자의식과 재편의 모티프로서 근대 기행담론과 기행문의 발전 과정』, 경진, 2018.

김병철, 『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 을유문화사, 1975.

김봉기, 『興武王實記』, 김병선방, 1923.

김영민 · 구장률 · 이유미, 『근대계몽기 단형서사문학 자료전집』 상 · 하, 소명출판, 2003.

김은희, 「양계초(梁啓超)의 소설론(小說論) 연구(研究)」, 『중국문학』 19, 한국중국어문학회, 1991, 115~130쪽.

김주리, 「〈과학소설 비행선〉이 그리는 과학 제국, 제국의 과학 - 실험실의 미친 과학자들(1)」, 『개신어문연구』 34, 개신어문학회, 2011, 169~196쪽.

김지영, 「히노 아시헤이의 냉전기행 - 『붉은 나라의 여행자』와 『아메리카 탐험기』 사이에서 바라본 전후일본의 ‘친미’와 ‘반미」, 『일본학보』 120, 한국일본학회, 2019, 73~96쪽.

김찬, 『羅賓孫漂流記』, 義眞社, 1908.

김채수, 「근대일본문학의 시대적 상황과의 관련성에 대한 고찰」, 『일본문화연구』 49, 동아시아일본학회, 2014, 55~92쪽.

김치홍, 『한국근대 역사소설의 사적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6.

- 남영우, 「하야시 시헤이의 생애와 업적」, 『영토해양연구』 11, 동북아역사재단, 2016, 118~157쪽.
- 다지마데쓰오, 「파선밀사 원본 연구-원본 『The Wrecker』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43, 한국문학연구학회, 2011, 129~162쪽.
- 민정기, 「梁啓超의 「少年中國說」 독해 - ‘소년/청년’ 소환의 중국적 맥락에 대한 고찰」, 『중국현대문학』 50,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09, 1~24쪽.
- 민족문화사연구소, 『민족문화와 근대성』, 문학과지성사, 1995.
- 송백현, 『한국근대 역사소설 연구』, 삼지원, 1983.
- 송석원, 「사쿠마 쇼잔(佐久間象山)의 해방론과 대 서양관」, 『한국정치학보』 37-5, 한국정치학회, 2003, 27~49쪽.
- 송현호, 「애국계몽기 소설 장르의 형성과 梁啓超의 역할」, 『인문논총』 6, 아주대 인문과학연구소, 1995, 109~128쪽.
- 신미삼, 「이석훈의 「로빈슨漂流記」 발굴과 소개」, 『근대서지』 20, 근대서지학회, 2019, 487~498쪽.
- _____, 「이석훈 번역 「로빈슨漂流記」 연구」, 『현대소설연구』 77, 한국현대소설학회, 2020, 333~369쪽.
- 신지연 · 이남면 · 이태희 · 최진호, 『완역태극학보』 1-5, 보고서, 2020.
- 안용희, 「모험의 가능성과 제국의 균열 - 『소년』의 번역 텍스트와 역사적 상상력을 중심으로 -」, 『국제어문』 43, 국제어문학회, 2008, 277~301쪽.
- 오현숙, 「개화계몽기 『로빈슨 크루소』의 변안과 아동 텍스트로의 이행」, 『비평문학』 46, 한국비평문학회, 2012, 299~332쪽.
- 오화, 「〈태원지〉와 〈경화연〉의 해양 탐험담 비교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42, 한중인문학회, 2014, 265~294쪽.
- 유협, 최신희 역, 『문심조룡』, 현암사, 1975.
- 윌리엄 브루스 · 이창식 역, 『양극탐험기』, 조선기독교문화협회, 1924.
- 이각중, 『실용작문법』, 유일서관, 1912.
- 이민숙, 「19세기 중국과 동아시아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 위원(魏源)의 해국도지(海國圖志)를 중심으로」, 『중국소설논총』 53, 한국중국소설학회, 2017, 129~156쪽.
- 이순탁, 『최근세계일주기』, 한성도서주식회사, 1935.
- 이승윤, 「한국 근대 역사소설의 형성과 전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6.
- 이승은, 「고전소설 속 바다 형상과 근대적 변모」, 『고전과 해석』 27, 고전문화한문학회, 2019, 91~118쪽.
- 이지훈, 「한국 근대문학 형성기의 여행 서사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 임상석, 「대한제국기, 일제 국가주의의 소설적 형상화 - 여행기 『實地探險捕鯨船』의 한국학적 의미」-, 『국제어문』 79, 국제어문학회, 2018, 243~272쪽.
- _____, 「보호국이라는 출판 상품 - 「울산행」의 번역에 나타난 한일의 문체와 매체-」, 『국제어문』 76, 국제어문학회, 2018, 115~149쪽.
- 임치균, 「〈태원지〉 연구」, 『고전문학연구』 35, 한국고전문학회, 2009, 355~384쪽.
- 정병호, 「일본근대문학자들의 민족주의의식 연구(1)-후타바테이 시메이(二葉亭四迷)의 동아시아인식을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16, 한국일본어문학회, 2003, 121~142쪽.
- 정혜영, 「『로빈슨 크루소』의 조선어번역과 근대조선을 향한 꿈 - 최남선의 「로빈슨無人絶島漂流記」를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28, 국제비교한국학회, 2020, 275~302쪽.
- 최재학, 『실지응용작문법』, 우문관, 1909.
- 최영호, 「한국인의 해양 도전 정신과 문학적 관심 - 100년 전 한국 최초의 남극탐험 소설을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14, 국제비교한국학회, 2006, 227~259쪽.
- 최찬식, 『리순신 실기』, 박문서관, 1925.
- 허석, 「近代日本文學의 海外擴散과 國家이데올로기에 대한 研究-明治時代 韓日兩國의 譯物을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24, 한국일본어문학회, 2005, 413~438쪽.
- 허영란, 「에미 스이인의 『實地探險捕鯨船』(1907)과 혼종적 장소로서의 장생포 포경기지」, 『사학연구』 135, 한국사학회, 2019, 125~161쪽.
- 홍연표, 「〈태원지〉-문화중화주의의 이상과 당위」, 『국어국문학』 172, 국어국문학회, 2015, 89~121쪽.
- 황미정, 「근대초기 번역소설의 번역어 연구」, 『일본문화연구』 51, 동아시아일본학회, 2014, 427~450쪽.
- 황병주, 「인물 전기와 근대(성)」, 『문학동네』 12-2, 문학동네, 2005, 1~19쪽.
- Verne Jules · 井上勤 譯, 『通信八十日間 世界一周』, 東京 自由閣梓, 1888.
- ゲ-テ 著 · 井上勤 譯, 『(禽獸世界)狐の裁判』, 春陽堂, 1896.
- ジエルス.ベルン 著 · 井上勤 譯, 『(九十七時二十分間)月世界旅行』, 三木佐助, 1886.
- デフオー-, タニエル 高橋光威, 『ロヒンソンクロ-ソウ 絶島漂流記』, 東京 博文館, 1909.
- _____, 『ロヒンソンクロ-ソウ 絶島漂流記』, 東京 博文館, 1909.
- 江見忠功(水蔭) 著, 『實地探險捕鯨船』, 博文館, 1907.
- 佛國 シュ-ルスベン原著 · 日本 大平三次 譯, 『五大洲中 海底旅行』, 東京文事堂, 1888.
- 笹森儀助, 『南島探險一名: 琉球漫遊記』, 東京 惠愛堂, 1984.
- 英國ゾーフラー著 · 井上勤 譯, 『絶世奇談 魯敏孫漂流記』, 博聞社, 1897.
- 英國ジエルス.ベルン · 井上勤 譯, 『六萬英里 海底紀行』, 博聞社, 1884.
- 梁啓超, 『飲水室文集』, 廣智書局, 1902.

| Abstract |

Formation and meaning of exploration literature
in moder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knowledge distribution

Kim, Kyung-nam

This thesis examines the distribution of exploration literature in modern Korea targeting biographies of explorers, translation novels, and expeditions, and identifies the background and meaning of the formation of exploratory literature such as biographies, novels, and expeditions from the point of view of knowledge distribution and the process. Exploration is the act of going to a place, taking a risk, and examining it. Modern Korean exploration literature can be categorized into biographies describing the life of an explorer, translation novels about adventures or expeditions, and explorers that organize records related to actual expeditions.

When examining the media such as modern Korean newspapers, magazines, and books, about 15 works that can be viewed as exploration literature during this period can be considered. Among them, most of the biographies introduced Columbus and Magellan based on the theory of progress in civilization. Most of the translated novels are translations of Western works such as the *Robinson Crusoe* and the *Gulliver's Travels*, but in the process, many Japanese translations were translated as executives. This has an important meaning in examining the background of the formation of exploration literature in modern East Asia in terms of

knowledge exchange. In the case of Japan in the early 19th century, based on the so-called 'liberation theory' and 'civilization theory', the translation of exploration novels and the period of exploration rapidly increased.

Even in modern Korea, exploration biographies and exploration novel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broadened the literary horizons in terms of enlightening discourses on the progress of civilization and encouraging patriotism. However, the fact that there are not many such works and the fact that there are very few expedition records that have compiled actual records of exploration can be said to be a limitation of the development of modern Korean literature in the era of the invasion of sovereignty.

Key Words: exploration literature, biography, translation fiction,
exploration, knowledge distribution,
civilization progress theory

· 논문투고일: 2021년 9월 17일 · 심사완료일: 2021년 10월 20일 · 게재결정일: 2021년 10월 24일
